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 경제강국 만들겠다”



‘만세삼창’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거리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3·4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분단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뚝뚝히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닥친 국가 경제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국일(克日)’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동시에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

일본, 과거 성찰 대화·협력 나오면 기꺼이 손 잡을 것
 한반도 비핵화 실현·평화경제 구축 통일로 광복 완성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하자

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조치에 단호히 대응하며 이를 계기로 국내 경제체질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건설을 위한 3가지 목표로 ▲경제강국 ▲교량국가 ▲평화경제 구축을 제시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남북 분단 극복을 토대로 ‘평화경제’를 통해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확고한 뜻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발전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순 없다.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한다”며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번영을 선택하도록 대화·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했던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며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다”며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며 “경제협력의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게 아니다”라며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이익이 되도록 함께 잘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서도록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공원일몰제 대응 ‘우수’

공원조성 계획을 제주도 이어 2위

광주시가 국토교통부의 공원일몰제 대응 우수 지자체 조사(공원조성 계획)에서 제주도 이어 2위로 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단체 공원조성계획(조성계획 면적/실효대상 면적) 조사 결과 상위 6개 광역단체는 제주(100%),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강원(45%) 순이었다.

제주의 경우 공원시설에서 해제되는 부지 10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광주는 애초 공원 부지로 잡았던 토지 가운데 91%를 공원으로 지켜낸다는 의미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계획 시설에서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민간사업자) 30%

이내에서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 재정공원 사업(지자체 재정으로 풀려날 공원 부지를 사들여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 등을 통해 공원 부지를 살리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광주의 경우 공원일몰제 대상 부지 1101만㎡ 가운데 91%에 해당하는 1000만㎡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예산 2600억여원을 들여 268만㎡(월산공원 등 15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832만㎡(중앙공원 등 9개소) 가운데 732만㎡를 공원으로 조성한다.

공원 예산 비율(공원 매입비/지자체 예산) 조사에서는 대전(9.2%), 서울(8.3%), 대구(8.2%), 부산(4.1%), 인천(4.1%), 제주(3.0%)로 평가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7월 실효대상 공원 부지 규모는 363.3㎢(1766개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 18일 폐막

한달간 세계 수영축제 마무리

전 세계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인 ‘2019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가 18일 폐막한다. 〈관련기사 2면〉 이로써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각 국 국가대표들이 참가해 ‘금빛 레이스’를 펼친 ‘2019 광주 FINA(국제수영연맹)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이어 이번 마스터즈대회까지 한 달여 간의 ‘광주 수영 축제’가 막을 내리게 됐다.

15일 광주시와 2019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막을 올린 마스터즈대회가 각종 ‘인간 승리’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등 14일 간의 열전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6000여 명의 국내외 아마추어 수영 동호인들이 대회 기간 중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광주의 맛과 멋, 흥을 제대로 만끽하는 등 수영 축제를 즐겼다.

이번 대회는 고령에도 여전히 젊음을 과시하는 세계 각국 동호인들이 상당수 많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나이와 장애의 편견을 모두 뛰어넘는 인간 승리의 감동의 드라마들이 연출돼 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또한, 동호인들과 가족, 친지들이 함께 참가하는 대회 특성상 광주의 풍경과 문화·예술을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 등 관광상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관광 광주’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Sulwhasoo

·설화수 몰레그스틴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몰레그스틴토어: 02-541-9270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부담)